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0호 [투계 제2624호]

주체 109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음력 10월 2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그리움의 12월이다.

민족회대의 상실의 아픔을 당한 12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9년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은 천재적인 자질과 탁월한 령도로 인민의 무궁한 행복과 민족의 통일번영,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한생을 강그리 불태워 오신 결출한 인민의 령도자, 저명한 세계정치원로로 우러러 따르는 가장 진솔한 칭송의 메아리로 울려 퍼져왔다.

『탁월한 사상리론의 영재』, 『리상형의 지도자』,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 『만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희세의 대성인』...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며 세계 5대륙으로 퍼져나간 위인칭송의 표현들 가운데는 『김정일령도자, 그이는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시는 멋진 지도자이다!』라는 격동적인 찬사도 있다.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신다!

이것은 가장 통속적이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있는 위인에 대한 칭송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가, 지도자들은 인민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였지만 이것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강권이나 강요로는 더욱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와 고매한 덕망, 탁월한 령도력으로 온 나

이 행성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위인칭송의 메아리

라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었다.

하기에 세계 각국의 수많은 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령도자로서의 위인적품모에 완전히 매혹되어 뿔어오르는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다.

로씨야의 『근로하는 로씨야운동』 위원장은 저서 『정치원로』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진실하게 서술하면서 『김정일동지는 현시기 세상에서 가장 권위있고 자주적인 정치가, 인민적인 정치의 거장이다.』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었던 로씨야의 부전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국제문제에 정통한 해박한 정치인이라고 조선 방문소감을 피력하였다.

유럽동맹국외교대표단 단장으로서 새 세계초에 공화국을 방문한 유럽리사회 의장이며 스웨리에 수상이었던 페르손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환히 꿰뚫고 계시며 복잡하게 제기되는 국제정치문제들에 대하여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깊이 매혹되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 국가수반

은 『오늘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하고 겹겹진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회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비결은 존경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에 일심단결을 확고히 이룩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수령과 군중이 한 덩어리로 된 이 특이한 정치체도는 세상에 또 없다. 오늘 북조선에서는 남녘로소모두가 김정일령도자를 위해서라면 육탄이 될 각오가 되어있다. 사실 서방은 이것때문에 북조선을 무서워하고있으며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이 나라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있는것이다.』라고 찬탄하였다.

미국 부르킹스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보여준 세련된 몸짓과 레의는 서방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정견과 신앙을 초월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기만 하면 누구든 그이의 출중한 위인상과 인민적정치가로서의 고결한 품모에 감복하여 이구동성으로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천재적인 예지와 만유인력에도 같은 건인력, 뜨거운 포용력으로 전세계의 각광을 한몸에 받으시며 천하를 움직이신 세계적인 정치원로이시었다.

그이께서 명활한 자주외교로 세계정치사에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변들을 이룩하시으로써 세계의 이목은 조선으로 더욱 쏠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자주외교에 의해 새 세계초에 들어서면서 많은 나라 정치가들과 외교관들은 『조선반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던 때는 지나갔다』, 『북조선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시대적요구이다』라고 하면서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앞을 닦아주었다. 결국 이탈리아, 영국, 도이쉴랜드, 에스파냐 등 서유럽나라들과 유럽동맹이 조선을 공식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는 사변이 일어났다.

말그대로 많은 서방 나라들이 동방조선에 관계개선의 문을 두드리는 『평양바람』이 일어났다.

새 세계에 들어와 일어난 이러한 극적인 사변에 대하여 서방언론들은 『북조선고립에 동조했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북조선의 지위에 대한 머리숙임』이라고 평하였으며 로씨야신문 『브라우다』는 『이것은 미국이 그렇게도 많은 공수를 들인 북조선에 대한 봉쇄가 허물어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으로 21세기초에 일어난 세계정치계의 지각변동은 바로 세계의 로숙한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자주정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유류의 한 조선문제전문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1990년대 중엽부터 오늘까지 조선에서 3대기적이 일어났다. 첫째로 국제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없어졌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실공히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 우뚝 솟은것, 둘째로 조선인민이 죽음의 나락을 딛고 올라서서 강성국가건설에로 나아가고있는것, 셋째로 지난 시기 북조선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이 나라에 화해의 손을 내민것이다.』

세계언론들은 『조선의 승리는 김정일각각께서 제시하신 자주적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다』, 『세계의 운명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에 따라 좌우 지되고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김정일각각하는 탁월한 정치가이실뿐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이것은 무변방대한 우주와도 같이 무한히 넓고 웅심깊은 지성과 도량,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뜨거운 공감과 경탄의 표시이며 그이의 독창적인 자주정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일어나는 세계정치계의 지각변동에 대한 인정이었다.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시

는 멋진 지도자!』.

전세계가 예도한 력사의 그 12월로부터 9년이 흘렀으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절절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카주위원회 비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은 력사의 가장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기적을 이룩하신 전설적위인의 한생이었다고 말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 혁명과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과 위협, 간섭을 반대하는 세계반제력량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는 김정일대원수각각하는 사회주의조선을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어 조선인민의 존엄을 지켜주신 전설적인 수령이라고 칭송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위원장 은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명인들이 기록되었지만 그이처럼 특출한 령도실력과 고결한 인격적

품모를 지니신 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속에 영생하실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진정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족과 인류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마음은 한두마디 말과 한두페이지 글로 다 전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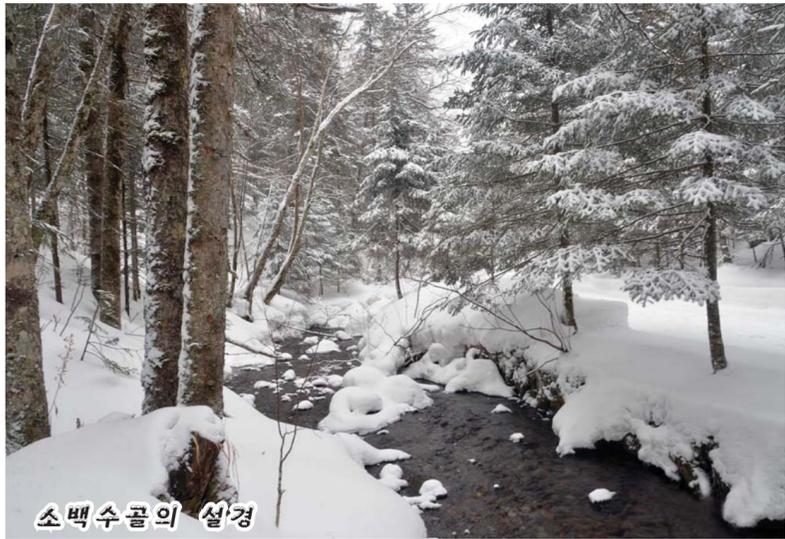
지금 세인은 위대한 장군님과 꼭 같은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이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계속 피력하고있다.

세계의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백두산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그대로이시라고 하면서 자주시대의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신것은 조선의 대통령, 최상최대의 영광이며 진보적인류의 대경사라고 보도하였다.

여러 나라의 정계인사들은 성명, 당화들에서 『김정은각각를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인민에게는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는 새로운 심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조선은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각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영원불멸할 태양의 력사는 계속 이어질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녕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태양의 력사는 계속 이어지고 위인칭송의 목소리들은 세계 각관도에서 나날이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김령성



조국소식

희천입원침대공장 준공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능력이 큰 의료비품 생산기지가 특색있게 일떠선것은 보건부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성과이다. 침대공장을 훌륭히 건설하는 준공식이 10일에 진행되었다.



향산야외빙상장 새로 건설

향산군에 야외빙상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지하층에는 사와실을 비롯 한 문화후생시설들이 고루 갖추어져있다.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 향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설공사를 1년 남짓 한 짧은 기간에 해체하였다. 7일 현지에서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회고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9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벨라루시, 민주공공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업적토론회,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러방공산당 아무르 주지부위원회 제1비서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신것이다.

20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련이어 사회주의가 좌절될 때 조선만은 끄떡도 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는 불후

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진보적인류에게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그이의 령도력에 조선인민은 혹심한 자연재해와 날로 가증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나아갔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든든히 다지였다.

이에 대해 세상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조선에서는 김정일동지의 위업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업무를 지켜 보시며 고무해주고계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력력히 아로 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추켜드시고 김정일동지께서 높이 휘날려오신 혁명의 붉은기는 조선에서 힘있게 나뭇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호소를 받들고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거둔 성과는 오직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는것이다.

조선의 막강한 군력을 뚜렷이 실증해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우리모두의 경탄을 자아냈다.

조선의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면 그 어떤 외부세력의 침략책동도, 모진

시련과 난관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시기에 조선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벨라루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배 책임자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12월 17일은 전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상실의 날, 슬픔의 날이다.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한생이었다.

그이의 저서들은 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선대수령의 혁명위업을 드림없이 계승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로씨야러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방위원회 제1비서는 년

대와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자주,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인민이 앞으로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민주공공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 업적을 찬양하였으며 누구도 따를수 없는 단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예지로 공화국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격찬하였다.

본시기자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절세의 예극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그리움의 정이 더욱 불타오르는 12월이다.

한평생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그 길에서 민족사에 길이 빛날 크나큰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 백두산 기슭의 삼지연시로부터 서해의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 전체 인민의 마음속에서 강렬히 일어번지고 있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애국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려는 굳은 결심을 피력하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온몸을 깎고 바치시었다.

나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 ...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이기에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는 그이의 위대한 한생의 숭고한 모습이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그이의 숭고한 인생관이고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힘에 부치지 않을 때면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며 힘과 의지를 가다듬으시었다.

...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 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

장군님께서 한평생 마음속에서 간직하신 그 희망은 조국의 부강번영이었고 인민의 행복이었다.

아무리 힘이 들고 고생이 많아 하여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삼고 밝은 태양을 그려보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가림없이 공장과 농촌, 건설장을 찾아 나라의 방방곡곡을 주름잡으

시며 무한한 헌신으로 삶을 불태우신 장군님이시었다.

공장이나 농장에 가면 나의 인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기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곤 한다고, 인민들이 잘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씩씩한 미소도 한숨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나는 우리 인민을 잘살수 있게 할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고 하신 장군님의 교시에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그이의 숭고한 인생관과 가장 적극적인 고 희생적인 헌신의 세계가 비껴여

진다.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씨로 된 함남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 강행군의 자욱마다에서 새차게 떠오른 뜨거운 애국헌신의 불길이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리신 그이께서는 주제 98(2009)년 한해에만도 사계절 눈비를 다 맞으시며 200여개에 달하는 단위를 찾고찾으시어 인민들을 새로운 대고조로 불러 일으키시었다.

새해벽두부터 땀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원도에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도도 하시는데 이어 2월에는 함경북도

의 라남을 비롯한 대규모공업기

지들과 자강도의 만포시, 함경북도의 회령시, 강원도 원산시의 공장, 기업소 등 여러 단위를 현지도하시어 그이께서는 다시 종횡무진하시어 함경북도의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현지도 하시었다.

이런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장군님께서 넘고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 위에서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군력은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은 이렇게 수호되게 되었다. 인민의 운명은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이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겨레의 머리위에 영원히 맑고 푸른 평화의 하늘이 펼쳐질수 있는것은 장군님의 애국애민 의 헌신에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총포성 울리는 결전장에서의 승리로 귀중하다. 그러나 나라의 군력을 최강으로 키워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게 하고 민족반대의 번영을 군사적으로 담보한 거대한 업적을 어찌 격전장에서의 승리에 비길수 있겠는가.

오늘의 행복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모든것이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견고결연인 조국수호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실수 있는 길이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의지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주제 100(2011)년 8월

를 높이 올리신 그이께서는 주제 98(2009)년 한해에만도 사계절 눈비를 다 맞으시며 200여개에 달하는 단위를 찾고찾으시어 인민들을 새로운 대고조로 불러 일으키시었다.

새해벽두부터 땀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원도에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도도 하시는데 이어 2월에는 함경북도

의 라남을 비롯한 대규모공업기

지들과 자강도의 만포시, 함경북도의 회령시, 강원도 원산시의 공장, 기업소 등 여러 단위를 현지도하시어 그이께서는 다시 종횡무진하시어 함경북도의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현지도 하시었다.

이런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장군님께서 넘고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 위에서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군력은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군력강화의 성스러운 그 길이 있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성스러운 혁명령도의 길에서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은 군력을 백배로 강화하시어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이 땅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주신것이다.

일찌기 혁명투력에 대한 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군력강화의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제국주의세력이 《사회주의 종말》을 떠들고 《북조선붕괴》설을 내둘리며 제재와 봉쇄의 고삐를 조이고있던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인민군부대들과 최전연초소들을 찾기도 찾으시었다. 경제와 인민생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건설에만 치중해서는 사회주의와 인

민의 운명을 지킬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군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지켜야 했다.

자주적인인민의 존엄을 지키며 살겠는가 아니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었는가. 문제는 이렇게 서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불빛같은 마음과 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시었지만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생각하시며 결연히 군력강화의 길을 택하시었던것이다.

그 길은 보통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헤쳐낼수 없는 길이었다. 천하대적도 눈아래로 굽어보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결심하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이어가실수 있는 길이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 라신 야전차는 나라의 무수한 산발들을 넘고넘으며 쉬임없이 달려다.

그 길우에는 철령의 아흔 아홉굽이령길과 짐재같은 파도를 헤쳐야 했던 초도에도 의 사나운 배길도 있었고 차체에 어깨를 들이대고 한치 한치 전사들이 있는 고지대로 오르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위험천만한 관문점과 대덕산, 지혜산과 351고지, 1211고지도 있었다.

언제인가 부디 사남고 험한 철령만은 더는 넘지 말아달라고 부락드리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최고사령관이 전선이 위험하고 천길남떠러지기 무섭다고 비켜선다면 누가 나의 병사들을 찾아가겠는가. 언 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지낼 때 고향집생각보다 먼저 최고사령관을 더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고있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에서 철령졸업중이랑 있을수 없다. 나의 철령행진길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전진시찰의 길은 가장 숭고하고 희생적인 헌신의 장정이었다.

그이께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진길에 계시었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전진의 병사들을 찾아가시었다. 아이들이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 인민이 단잠에 들었을 때에도 장군님 라신 차는 험한 령길을 넘고있었다.

그렇게 달리고달리신 길이 몇천몇만리던가.

후날 그때 일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우리 나라의 령이란 령은 다 남었고 산이란 산은 거의다 올라가보았다고 감회깊이 추억 하시었다.

고난의 행군의 전기간 나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

던 인민,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명결단의 의지만을 안고 살았다. ...

이런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장군님께서 넘고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 위에서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군력은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은 이렇게 수호되게 되었다. 인민의 운명은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이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겨레의 머리위에 영원히 맑고 푸른 평화의 하늘이 펼쳐질수 있는것은 장군님의 애국애민 의 헌신에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총포성 울리는 결전장에서의 승리로 귀중하다. 그러나 나라의 군력을 최강으로 키워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게 하고 민족반대의 번영을 군사적으로 담보한 거대한 업적을 어찌 격전장에서의 승리에 비길수 있겠는가.

오늘의 행복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모든것이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견고결연인 조국수호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실수 있는 길이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이 인민위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다. 자신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나올것이 없다고 하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한 헌신적봉사의 길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교시 하시었다. 인생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다른것이 아니다. 조국의 통성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더 헌신분투하겠다. ...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것.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신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 《인민을 위하여 투쟁!》에는 한평생 인민을 하늘이라 하는 지론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를 펼치신 그이의 정치신념이 집약되어 있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로선과 정책작성의 절대적기준으로 여기시였으며 그 무엇을 창조하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기뻐하는가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자기마한 결합이 나타났을 때에는 인민들이 뭐라고 하였는가고 나무람하시었다. 발전소건설에 지장을 받더라도 침수지역 주민들의 살림집부터 먼저 도록 하시고 닭공장과 비단천, 화장품생산단위들을 찾으시어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당부 하시었다. 새 형식의 교

필수 있었다.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몸과 열정을 다 기울이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동력기지와 공작기계, 튼튼기계, 견재생산기지를, 축산, 파수, 양어, 가공기지를, 경공업기지와 상업봉사기지를, 문화정서생활기지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력력히 새겨져있으며 하나하나의 창조적재부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귀중한 밑천이시었다.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을 더 잘살수 있게 할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고 하신 장군님의 교시에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그이의 숭고한 인생관과 가장 적극적인 고 희생적인 헌신의 세계가 비껴여

진다.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씨로 된 함남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 강행군의 자욱마다에서 새차게 떠오른 뜨거운 애국헌신의 불길이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리신 그이께서는 주제 98(2009)년 한해에만도 사계절 눈비를 다 맞으시며 200여개에 달하는 단위를 찾고찾으시어 인민들을 새로운 대고조로 불러 일으키시었다.

새해벽두부터 땀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원도에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도도 하시는데 이어 2월에는 함경북도

의 라남을 비롯한 대규모공업기

지들과 자강도의 만포시, 함경북도의 회령시, 강원도 원산시의 공장, 기업소 등 여러 단위를 현지도하시어 그이께서는 다시 종횡무진하시어 함경북도의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현지도 하시었다.

이런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장군님께서 넘고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 위에서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군력은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은 이렇게 수호되게 되었다. 인민의 운명은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이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겨레의 머리위에 영원히 맑고 푸른 평화의 하늘이 펼쳐질수 있는것은 장군님의 애국애민 의 헌신에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총포성 울리는 결전장에서의 승리로 귀중하다. 그러나 나라의 군력을 최강으로 키워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게 하고 민족반대의 번영을 군사적으로 담보한 거대한 업적을 어찌 격전장에서의 승리에 비길수 있겠는가.

오늘의 행복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모든것이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견고결연인 조국수호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실수 있는 길이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의지를

필수 있었다.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몸과 열정을 다 기울이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동력기지와 공작기계, 튼튼기계, 견재생산기지를, 축산, 파수, 양어, 가공기지를, 경공업기지와 상업봉사기지를, 문화정서생활기지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력력히 새겨져있으며 하나하나의 창조적재부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귀중한 밑천이시었다.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을 더 잘살수 있게 할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고 하신 장군님의 교시에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그이의 숭고한 인생관과 가장 적극적인 고 희생적인 헌신의 세계가 비껴여

진다.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씨로 된 함남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 강행군의 자욱마다에서 새차게 떠오른 뜨거운 애국헌신의 불길이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리신 그이께서는 주제 98(2009)년 한해에만도 사계절 눈비를 다 맞으시며 200여개에 달하는 단위를 찾고찾으시어 인민들을 새로운 대고조로 불러 일으키시었다.

새해벽두부터 땀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원도에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도도 하시는데 이어 2월에는 함경북도

의 라남을 비롯한 대규모공업기

지들과 자강도의 만포시, 함경북도의 회령시, 강원도 원산시의 공장, 기업소 등 여러 단위를 현지도하시어 그이께서는 다시 종횡무진하시어 함경북도의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현지도 하시었다.

이런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장군님께서 넘고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 위에서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군력은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은 이렇게 수호되게 되었다. 인민의 운명은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이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겨레의 머리위에 영원히 맑고 푸른 평화의 하늘이 펼쳐질수 있는것은 장군님의 애국애민 의 헌신에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총포성 울리는 결전장에서의 승리로 귀중하다. 그러나 나라의 군력을 최강으로 키워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게 하고 민족반대의 번영을 군사적으로 담보한 거대한 업적을 어찌 격전장에서의 승리에 비길수 있겠는가.

오늘의 행복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모든것이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견고결연인 조국수호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실수 있는 길이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의지를

진다.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씨로 된 함남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 강행군의 자욱마다에서 새차게 떠오른 뜨거운 애국헌신의 불길이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리신 그이께서는 주제 98(2009)년 한해에만도 사계절 눈비를 다 맞으시며 200여개에 달하는 단위를 찾고찾으시어 인민들을 새로운 대고조로 불러 일으키시었다.

새해벽두부터 땀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원도에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도도 하시는데 이어 2월에는 함경북도

의 라남을 비롯한 대규모공업기

지들과 자강도의 만포시, 함경북도의 회령시, 강원도 원산시의 공장, 기업소 등 여러 단위를 현지도하시어 그이께서는 다시 종횡무진하시어 함경북도의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현지도 하시었다.

이런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장군님께서 넘고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 위에서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군력은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은 이렇게 수호되게 되었다. 인민의 운명은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이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겨레의 머리위에 영원히 맑고 푸른 평화의 하늘이 펼쳐질수 있는것은 장군님의 애국애민 의 헌신에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총포성 울리는 결전장에서의 승리로 귀중하다. 그러나 나라의 군력을 최강으로 키워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게 하고 민족반대의 번영을 군사적으로 담보한 거대한 업적을 어찌 격전장에서의 승리에 비길수 있겠는가.



위대한 령장의 선군장정으로 빛나는 철령의 아침

수레동자꽃

수레동자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제 83(1994)년 11월 영주 로이 터통신사 분원집부장 마이클 란크가 올린 선물식물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그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흠모심을 간직하고있던 마이클 란크는 수령님을 영원히 향기로운 꽃속에 모시려는 자기의 절절한 마음을 선물에 담고싶었다. 하여 그는 행복의 상징으로 알려진 수레동자꽃을 정성껏 준비 하였다. 원산지가 로씨야의 씨 비리, 중앙아시아인 수레동자꽃은 페랭이꽃과 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꽃의 모양새가 아름다운 것으로 하여 정원, 공원, 리고싶어하는 그의 진정이 유원지에 심으며 꺾음꽃으로도 리용한다. 마이클 란크는 선물식물을 조성 로동당 창건 49돐에 즈음하여 올리였다. 선물식물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세 계 진보적인 려의 영리한 수레동자꽃은 페랭이꽃과



본사기자

신기복

2020년 인민사랑의 열두달

1월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밝아온 새해의 첫 아침 이 땅의 방방곡곡에는 지난 주체108(2019)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도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가 전해졌다.

자주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전원회의에서는 절대미분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민족자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 제시되었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여야 하며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자면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진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안고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

2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는 2월의 그 날에도 공화국의 인민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헌신의 날과 날들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2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당면한 정치, 군사, 경제적과업들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 비무사선연병을 막기

3월 3월 17일에 성대히 진행된 평양종합병원착공식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일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의 구상과 결실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계기로 전세계의 시선을 모았다.

그 뜻깊은 자리에 몸소 참석하시어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연설도 하신 경애하는

4월 이 땅에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던 지난 4월에도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아버지의 헌신의 길은 쉬임없이 이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4월 11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인민의 생명

5월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월 1일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안아올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인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훌륭히 일떠선 공장의

6월 6월 7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는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7월 7월의 한달동안 예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소집하시었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장과 건설중에 있는 광천탕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7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

2020년이 바야흐로 저물어가고있다. 세계적으로 악성비루스전염병과 자연의 광란이 휩쓴 이해는 공화국에 있어서도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한해였다.

하지만 공화국은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제힘으로 뚫고나가며 비상방역전, 거창한 피해복구전을 펼치고 창조와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건설중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모습의 진행



평양 20km, 강남동구 4km



어머니당의 은정어린 특별지원물자 개성시민민들에게 전달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인민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



수도당원사단이 일떠세운 피해지역의 살림집들



피해지역들에서 새집들이 진행



삼지연시의 100개 동, 리에 일떠선 수천세대 살림집들의 일부

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올해는 정말 류례없이 힘든 해이지만 투쟁하는 보람도 특별히 큰 위대한 승리의 해로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본사편집국은 이 한해에도 온 나라 인민을 따듯이 품어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오신 위대한 아버지의 감동깊은 헌신의 날과 달을 되새겨본다.



개건현대화된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준공



신의 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

8월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회의에서는 여러 문제들과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중앙이 특별지원할때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다.

개성시민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현장에 나가시어 실태를 직접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태풍8호에 이어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가 련속 발생하였을 때 자연재해 복구전투조작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하시고 몸소 피해지역을 돌아보시었다.

9월 5일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에 도착하시어 현지에서 료해장악한 태풍피해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마땅히 당원들 특히 수도의 당원들이 앞장서는것이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당중앙은 평양시의 핵심당원들에게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펼쳐나갈것을 호소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10월 아버지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들은 가을의 락입없이 이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엄혹한 자연의 광란은 많은것을 한순간에 휩쓸어갔어도 피해지역들에 번듯한 새 집들이 일떠서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여 최고수확년도에 못지 않은 알곡수출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정말 류례없이 힘든 해이지만 투쟁하는 보람도 특별히 큰 위대한 승리의 해로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10월 5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는 당창건 75돐을 승리와 전진의 대경사로 빛내이고 그 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올해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계속하며 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노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당적, 전국각적으로 년말까지 80일전투를 전개할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10월 10일, 진정한 인민의 명절, 승리자들의 명절인 조선로동당 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11월 11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보강할때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회의에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걸머진 책임의 막

12월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에도 인민을 위한 절세위인의 사색과 로고는 끊이지 않고있다.

인민은 단잠에 재우시고 자신께서는 인민의 생명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인민의 령도자.

인민의 귀중한 생명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랑 부족하싯듯 이 땅의 도처에 인민을 위한 훌륭한 선경들을 펼쳐주시신 자애로운 아버지. 지난 날날에도 그러하였지만 공화국에서 올해 2020년은 예상치 않았던 수

로해하시면서 피해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그 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정무국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도 인민의 귀중한 생명안전을 지키고 수제민들에게 하루빨리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랑의 조치들을 렬이 취해주시였으며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찾으시어 피해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 나날에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아버지의 진정이 어린 공개서한의 글줄을 읽을수 있었으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평범한 검덕의 로동계급을 위해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도록 해주신 사랑의 이야기도 접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과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시어 인민군인들의 투쟁성고도 치하해주시고 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부듯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기뻐하시며 강북리의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불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북이 깃들기를 바라다는 정깊은 말씀도 하시었다.

이 뜻깊은 경축열병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감동깊은 연설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넘치는 진정을 정중히 삼가 드리시었다.

세상에 존엄없는 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행복만을 안겨주시신 아버지의 인민사랑의 연설은 경축의 광장을 격정다 눈물의 바다로 만들었다. 그 뜻깊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라고 소리높이 불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립시복구전 위원관만한 협목철길을 달려 밟고 험한 검덕의 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시였으며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떠맡아 인민군대와 함께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소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겠다는 원대한 구상과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이러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 건설장들도 찾아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수도당원사단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리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 줄,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이약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었다.

11월 11월 29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많은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더욱더 가슴뜨겁게 전해진 감동깊은 한해였다.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 위대한 아버지의 애민헌신의 2020년은 돌아볼수록 눈물이 뜨겨워지게 한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시는 자애로운 아버지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어 인민사랑의 열두달을 새겨온 공화국에서는 새해에도 만사함을 감동시키는 인민사랑의 무수한 전설들이 생겨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남조선 각계층이 시국선언운동 전개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시국선언문이 계속 발표되고있다고 한다.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경상남도과 진라남북도지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 창원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있는 검찰청과 지방 《정부》청사앞에서 동시에 《정치검찰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시국선언문에서 이 단체들은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사이의 개인적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

의 존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집단행위의 대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체제와 야합하여 술한 인권을 유린해온 가운데 최근 수주야당과 가운데 비호아래 로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고 시국선언문은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식인단체소속 교수 7 000여명과 4대총단 종교인 100여명, 7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

남조선에서 《세월》호유가족들이 지난 3일부터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여 《국회》앞에서 통성투쟁을 벌인것이 어른의 주목을 끌었다고 한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그들의 요구는 사고원인 등을 조사중인 사회적참사위원회(사참위)활동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며 《세월》호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개정안을



본사기자 주광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통과시키자는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세월》호유가족들은 《(COVID-19)로 인해 올해 내내 사참위활동이 큰 제약을 받았다. 이제야 겨우 사참위활동성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사기간이 꼭 연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국회가 사참위법을 통과시킨 후 3년간 여기에 전혀 판권이 없었다. 국회가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래서 안된다. 제때서 안된다.)가 아니라 제때 진심으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자기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로 토로하였다고 한다.

이에 앞서 남조선 언론 《뉴스1》은 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앞에서 통성중인 《세월》호유가족들을 만나 《성역없는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같은 당의 한 의원이 《사참위법개정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단독으로라도 처

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지도부에 내고있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타협안을 논의해보겠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연장을 요구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협상개방비트는 꼼꼼히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노컷뉴스》가 전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개정안, 《사참위법》개정안 등의 직권상정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김광혁

《로조법개정안》을 반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로총이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각 지역에 20여만명의 참가일에 《로동계약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로총 총과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열고 《로조법》개정안과 《전태일3법》 쟁취를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 《뉴스》, 《연합뉴스》 등은 지난 11월 24일 민주로총이 《정부, 국회가 《로동법개정안》론의를 계속할 경우 파시할수 없다.》, 《이를 강행시 민주로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확대총과업을 결의할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분산개회의 방편으로 총과업을 벌였다고 전하였다.

또한 언론들은 정의당이 《(정부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로조설립권리가 통째로 빠졌고 협약과 상관없는 단체협약유효기간연장, 사업장내 쟁의행위금지 등이 들어갔다.》고 비판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로조법개정안》의 부당성을 까발렸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로조법개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동계가 압박하자 여당관계자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것은 아니다. 당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하

고있다.》, 《로동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로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고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언론들은 《국민의힘》이 《로조법개정안》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해고자, 실업자의 로조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력으로 로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어려움이 가중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하는 경영자측과 재계의 주장을 힘써주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검찰개혁이 시대적과제임을 강조하는 글 발표

얼마전 남조선인터넷신문 《민데르스》가 《검찰개혁, 시대적과제이자 진보의 과제》라는 글을 발표하여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한다.

신문은 글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시대의 숙제》라고 하면서 《검찰은 한마디로 괴물이다. ...이 괴물을 처음 만든것은 일본제국주의이며 이유는 식민지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검찰에 모든 권한을 몰아준것이 지금까지 유지

되고있는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글은 해방후 청산되어야 할 기형적검찰은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군사독재시기 오히려 《정권》의 통치수단,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커졌으며 법원도 마찬가지로 개탄하였다. 이어 70여년만에 초보시민이 법원민주화,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등 사법개혁, 적폐청산을 요구하여 나섰지만 《이들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70여년 기득

본사기자

종교단체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요구

남조선언론 《뉴스1》에 의하면 지난 7일 3개의 종교단체 로동인권연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시 제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로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로동사목위원회》 등 3개 종단 로동인권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청년비정규직

로동자 김용균이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로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로동자안전권을 외면하고 리윤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수 없는것으로 치부해온 사회적분위기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사

라지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안의 제정을 통해 리윤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수 있다.이것만으로도 법제정의 의미는 무엇보다 바꿀수 없을만큼 큰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언론은 또한 참가자들이 공동성명발표이후 《국회》를 향해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려는 모습을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 《일하는 사

본사기자

일본이 《군함도》로 불리우는 하시마섬에서의 조선인 강제징용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1일 일본당국은 세계유산센터에 《해석전략 리행현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강제징용문제와 관련된 《조선인로동자가 일본인로동자와 똑같은 환경에 있었다.》고 표현하였으며 조선인 강제징용피해자가 1 000명에 달하는 나이가더한 사도광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한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사회적 배상은 고사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는 무도하고 뻔뻔스러운 섬나라이다.

남조선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2012년에 발표한데 의하면 1944년에만도 《군함도》에 조선인로동자가 500~800명이 있었던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일본인들조차도 《지옥도》라 부른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했더라는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 안하면 두드려 패고

조선사람은 약도 안 주고... 거기서는 사람을 때려죽여도 그만이었다.》

《군함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조선사람의 이 증언에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서려있다.

일본은 2015년 조선사람들을 상대로 끝이다 고역을 강요한 《군함도》를 비롯한 23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전체 역사를 소개하고 조선징용희생자를 기억하는 정보센터를 만들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자국내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저들의 산업화성과만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내용과 함께 《조선전쟁은 강제가 아니었고 차별도 없었다.》는 내용을 전시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일본의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의 인사들도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당국의 역사관을 강변하는 장소》라고 규탄하였는가.

한편 일본당국은 역사외곡을 주도하는 국유단체들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 5600만엔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역사외곡책들을 체계적으

본사기자 김정혁



부정할수없다. 그리고 배가된다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고

몇해전 공화국의 개성시 송악산, 천마산, 지네산에서 일제가 조선강점시기에 박은 쇠말뚝이 발견되었다.

길이 1m, 직경 30cm정도인 쇠말뚝들은 송악산의 정점부근에 1대, 천마산의 한 봉우리에 3대, 지네산의 신선바위에 2대 박혀있었다.

이밖에도 송악산의 정수리 부분과 삼거리의 통바위웃부분, 지네산의 어느 한 바위 등에서 쇠말뚝이 깔려있던 자리가 발견되었다.

개성지구에서 발견된 쇠말뚝들은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책들의 악랄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증거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산을 사랑하고 자랑하여온 우리 민족은 산의 형세를 잘 살피고 그것을 인간세상의 리치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왔다.

물이 흐르고 숲이 무성한 산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려야 끝 천하를 다스릴수 있다고 일러왔다.

그와 함께 수려한 산에는 맑은 물이 있기마련이고 산수 뛰어난 곳에서는 위인파장수 등 인제가 배출되기마련이라는 말도 전해왔다.

햇빛이 잘 비쳐들고 숲이 무성하며 시원한 샘이 솟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명당으로 꼽혀왔는데 단군과 동명왕, 왕건 등 건국시조왕들의 출생과 관련한 역사적사실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

한 조사사업도 함께 밀고나갔다.

일제는 수많은 사이비학자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풍수와 관련한 조사사업도 작성편찬하도록 하였다.

1931년에 출판된 《조선의 풍수》도 그러한 책의 하나이다.

이 책은 조선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 풍수를 대하였는가를 여러편으로 나누어 전면적으로 틀쳐내었다.

그 과정에 조선사람들이 산을 매우 중시하여 명산들을 신성시하여 받들었다는것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질 뛰어난 인재배출에 대한 념원을 산에 의탁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된 일제는 조선민족의 그러한 념원과 사상감정을 짓밟아버



천마산에서 발견된 쇠말뚝과 꺾어진 쇠말뚝의 일부

리는것으로써 민족의 얼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인재가 나오지 못하도록 산을 조개여 두동강을 내거나 산의 요진동에 쇠말뚝을 달구어 박거나 그 모퉁이를 없애버리게 하는 등 갖은 비열하고 악독한 수법들을 다 찾아내었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거기에서 뻗어나간 모든 산줄기의 주요명맥들에 쇠말뚝을 박는 실로 너털하고 치졸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송악산, 천마산, 지네산을 비롯한 개성지구의 산발마다에서 드러난 쇠말뚝들은 일제의 이러한 책동의 산 증거물이다.

조선의 수많은 명산들의 높은 산발들을 오르내리면서 국소, 국부를 찾아서 쇠말뚝을 박는 지점을 확정하고 수십개의 쇠말뚝과 작업도끼들, 지어 세멘트와 류황까지 날라오고 구멍을 뚫어야 하는 그렇듯 많은 힘이 드는 일은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사될수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귀중한 명산들을 모두하고 조선민족의 얼을 말살하려고 미처달면 일본의 국약무도한 민행은 인류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민경남

행복의 금방석



◇ 평양시교외에 과학자들을 위한 보급자리인 은하과학자거리가 있다. 은하과학자거리는 1 000여 세대에 달하는 21개 호동의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인 은하원과 식당, 상점들 그리고 다기능, 다목적화된 아동공원, 소공원들로 이루어져있다. 은하과학자거리는 주제102(2013)년 9월에 완공되었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이끌어주시는 이 거리는 그이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훌륭히 건설되었다. 과학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셔야 마옵소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과학자살림집건설을 받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감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었다.

건설현장을 여러차례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림에 대하여 강조하시었으며 집들에 들어놓을 가구들을 계획했던것보다 거의 배로 늘이고 살림집의부마감공사에 필요한 타일과 바닥마감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조치를 취해주셨다.

그리고 도로와 걸음길로장, 나무심기 등 건설을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이렇듯 은하과학자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일떠선 고귀한 창조물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과학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셔야 마옵소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과학자살림집건설을 받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감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었다.

건설현장을 여러차례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림에 대하여 강조하시었으며 집들에 들어놓을 가구들을 계획했던것보다 거의 배로 늘이고 살림집의부마감공사에 필요한 타일과 바닥마감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조치를 취해주셨다.

그리고 도로와 걸음길로장, 나무심기 등 건설을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2014년 촬영

위력 궤환, 위력 궤환

입맛을 돋구는 장제품 《봄맛이》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하는 《봄맛이》 장제품을 단장제품들이 가정주부들속에 수요가 높다.

공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된장생산방법에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된장의 질을 종전보다 훨씬 높임으로써 전국기초식품전시회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전시회들에서 많은 메달과 상장, 중시를 받았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게 기초식품의 가지수도 부쩍 늘이고있다. 요드된장, 레시틴된장, 깨요추장, 마늘간장, 들깨있간장, 생강간장, 들깨있간장, 불고기용간장, 물고기용간장, 남새가공용간장 등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기초식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봄맛이》 장제품의 맛이 좋은데는 두가지 비결이 있다. 하나는 발효장크이고 다른

하나의 숙성기일이다. 공장에서는 부피가 큰 발효장크들에서 장을 담그는데 여기에는 많은 량의 낱알, 소금 그리고 단백질원료들이 들어가며 그것들이 서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는 맛은 참으로 독특하다.

장 맛을 살리는데서 숙성기일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서는데 공장에서는 앞선 장생

산기술을 받아들여 숙성시킨 발효장크를 생산하고있다.

본사기자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새 세기 교육혁명 (1)

새 세기 교육혁명. 이 말속에 교육의 나라, 인제강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가는 북부조국의 교육현실이 다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새 세기 교육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대한것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다.

사실 조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인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나날에 동방에서 제일먼저 전반적인 초등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만 무로교육을 안받침한 의무교육을 온 나라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11년이나 실시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나는 조선사람으로서 이에 대하여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2012년 9월,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나는 놀라운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새롭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표되었던것이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조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생소한 초보자들도 놀라움과 의혹을 동시에 느꼈것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투자자의 가장 큰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교육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때문에 경제가 발전되었다는 나라들에서도 감히 교육기간을 연장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것이 적지 않은 조국이 1~2년도 아니고 3~4년도 아닌 11년간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12년으로 1년 더 늘인다는 놀라움은 감당할 수 없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공화국이 교육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중등학교,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교육과 현대적인 기초기술교육을 새 세대들에게 배워주어 그들의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의무교육인 것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교육과 현대적인 기초기술교육,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강국건설의 유능한 인재들로 키운다는데 그 정당성과 우월성이 있다고 본다.

조국에서는 2014년부터 중등일반교육부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다고 한다.

과학기술시대의 년평균성장률이 계속 오르고있는 현실에서 교육기간을 1년만 늘여도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비할바없이 늘어난다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분석자료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로 하여 조국은 더욱더 강대해질것이라는 신심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믿음은 그로부터 2년후에 올린 새 세기 교육혁명의 포성과 함께 더욱 확고한것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2014년 9월 5일, 평양에서

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37돐을 맞으며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이 열렸다.

대회와 관련한 소식을 접한 나는 즉시 인터넷을 통해 대회관련자료를 열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당연히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지》에 초점이 집중되었다.

나는 로작의 진수를 나름대로 파악해보고자 자자구구장독도 하고 로작과 관련한 기사들을 망에서 탐독하면서 현시기 조국에서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있으며 또 교육혁명의 목표와 그 중요내용, 실현방도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에 비해볼 때 나라의 교육사업이 웅대한 수준에서 진행되고있고있다는데 대해 분석총화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교육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을 총칭하여 받들고 주체혁명의 실천방도들을 공고히 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혁명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 하시기면서 구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지!》를 제시하시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역사적 포성을 울리시었다.

재중동포 김영란

평천일용필수품공장은 크지 않은 공장으로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자원화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낡은 선반 2대를 가지고 일용필수품생산동조합으로 첫걸음을 댄 공장에서는 파괴된 압연기를 복구정비하고 자투리철판을 압연하여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만들어냈다.

주제47(1958)년 8월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쓸모있는 인민소비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일용품을 치하시면서 공장이 재자원화를 경영전략으로 들어주고나갈수 있는 명안을 밝혀주시었다고 공장의 김정길지배인은 말하였다.

지금 공장의 압연작업반에서는 자투리철판을 가정생활에 쓸모가 많은 여러가지 철제

시초 한 녀의사의 수기 (4)

김영일

《꼭아지미》

나에게는 잊지 못할 부름이 있다
《꼭아지미》
치녀시절 꼬마친구들이 붙여준 나의 애칭
그 부름을 두고 때때로 행복한 추억에 잠겨본다

소아마비에방접종주사
간염과 결핵에방접종주사...
한번에 다 품기에는 아픈 참예방주사를 놓기 위해
탁아소나 유치원에 나갈 때면
꼬마들이 울먹울먹하며 나를 무서워했다

오늘은 그 아이들이
나라의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다 자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자손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오늘은 그들이 나를 보고 울상이다
어제날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주사기를 꺼내는 나를 보고
그러면 어린시절의 그들의 부모들을 보는듯싶어

나의 눈가에는 웃음발이 비친다
치녀시절에는 아이들 마음을 열 생각을 못했을까
아마도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
끝없이 자책하며
잠시잠간 따끔한 아픔에 울 아이들을 얼린다

울면 고운 얼굴 미워져요
용감한 사람은 울지 않아요
자 모두 웃어보지요
보세요 울지 않는 어린이는 얼마나 곱나요

아이들이 웃는다
저저마다 나는 용감하다고
그렇지 그래 우리 아이들 모두 용감하지
꼬마들이 스스로 팔을 쭉 내민다
저저마다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 꼭 해주세요
아 행복한 우리 아이들
마음껏 웃으며 탈없이 자라거라
이 할머니 너희들의 건강을 언제나
꼭꼭 돌보는
영원한 《꼭아지미》로 살리라

재자원화를 경영전략으로 들어주고



일용품은 물론 각이한 용도에 쓰이는 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에 의거한 재자원화기술을 받아들여 재생수지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재생원료를 기본으로 하여 인민생활과 건설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수입원료에 의거하여 수지제품을 생산하였지만 재생수지에 의한 수지제품생산체제로 전환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설비개조에 달라붙었다.

리승철책임기사는 생소한

재자원화를 중점을 두고 진행된 토의끝에 폐기된 방직설비를 기술개조하여 인공잔디생산설비를 자체로 만들어내자는 기발한 안이 제기되었다.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공장 직원들도 이 발동되어 효율 높은 인공잔디생기기구와 인공잔디합사기를 제작해냈다.

뿐만아니라 인공잔디생산용 상온가류고무롤과 이동식 자동온도조절장치, 인공잔디 풀의 색깔을 비롯하여 각종 자재도 재자원화기술을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재원이 섬세하고 질이 좋은 인공잔디제품이 나왔을 때 자력생산한 보람을 뜻이 느낄수 있었다고 공장의 중공업원들 누구나 이야기한다.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생산과 재자원화, 이것은 오늘 공장의 경영전략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재생수지제품들은 그 질이 좋아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은반우에 구슬땀을 바쳐가는 모녀

공화국의 대생산체육단 체육인들중에는 모녀간인 오예련, 표영명녀성들도 있다.

어머니인 오예련은 빙상회 거점이고 딸인 표영명은 빙상회거점수이다.

민족적인 충동과 장단을 빙상회거점의 특성에 맞게 도입할 줄 아는 오예련감독의 재능은 탄복할만 하다.

그는 고집이 센 노력을 기울여 빙상회거점에 민족적특성이 살아있는 충동작들을 도입하여 민족의 장단과 춤동작, 멋으로 일관되게 하는데서 한몫하였다.

전문가들은 광명성절즉백두산상국체회거점들에서 만사람의 절찬을 받은 남자개인 《풍구라령》, 집체

출연 《청산비에 풍년이 왔네》, 《바다 만풍기》 등은 오예련감독의 피나는 노력과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의 딸인 표영명선수는 국내에서 우수한 여자빙상회 거점수들중의 한명이다.

4살때 자그마한 휘거스케

트를 신고 은반우에 섰던 그녀는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집단의 방죽에서 우수한 선수가 되었다.

그는 동작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우아하며 기술이 뛰어난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속에서 전망이 기대되는 선수로 인정받고있다.

지난해 그는 공화국선수권 대회와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빙상회거점에서도 높은 기술로 또다시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9년전 12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빙상회거점모듬출연에 참가하여 그에게 기쁨

과 만족을 드리였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모범출연성과를 축하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언제나 가슴에 새겨지고 오예련감독은 훈련과 경기지도로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의 선두에서 있으며 표영명선수는 훈련은 훌륭한 선수를 키우는 용광로라는 관점을 가지고 머나먼 훈련길을 언제나 앞장에서 달려왔다.

생활에서는 어머니와 딸사이이지만 훈련과 경기에서는 뒤자리를 모르는 감독, 선수가 되어 이들은 오늘날 은반우에 훈련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조선의 천하제일경

백두의 칼바람



조선의 천하제일경-백두산 8경에는 백두의 칼바람(백두령풍)이 있다.

한번 불어치면 만리창풍에 백설을 휘날리고 천지의 푸른 물결기 격랑을 일으켜 바위를 치고 절벽을 들부시며 천심을 울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백두의 칼바람

은 백두산에서만 볼수 있는 절경이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은 년중 230여일이며 장군봉(해발높이 2750m)에서의 최대바람속도는 60m/s, 순간 최대바람속도는 78.6m/s나 된다.

백두의 칼바람이 불어칠 때면 통선과 계곡에 쌓여있던 수심m높이의 눈도 순간에 저 멀리 밀릴속으로 날려가버린다.

백두의 칼바람에는 황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만년을 헤치며

싸워 조국해방을 이룩한 선렬들의 불굴의 넋과 기개가 맥박치고있다.

몇해전 백두산에 오르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 자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 백두산의 진짜매력을 알수 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백두의 칼바람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력사의 광풍을 짓부시고 민족자주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공화국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기상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평양향료공장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갖가지 향료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천연향료추출, 향료배합, 주입 및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현대화, 무진화된 통합생산체계를 이루고있으며 향료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되어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내는 수십가지 천연향료, 식용향료, 공업용향료, 향수들을 생산하고있다.

인민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여러가지 향료제품을 생산하고있는 공장에서는 국내원료에 기초한 향료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향료생산에서 향료의 열변형을 적게 하며 순간적으로 가공하는 기술은 어려운 과

학기술적문제라 되고있다.

공장의 향료연구소 연구사들은 한번의 가공으로 필요한 향료의 색과 향기, 맛 그

축, 나노교감기술들을 리용하여 천연정유들과 조합향료들을 생산하고있는데 이 제품들은 식료공장과 화장품

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최동광 향료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향료들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마다 이것이 바로 우리것, 우리의 향기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향료공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본사기자 립광훈

우리것, 우리의 향기

— 평양향료공장에서 —

리고 천연물그대로의 생신한 느낌을 살릴수 있는 등분조화법과 국내에 흔한 원료로 살충효과가 대단히 높은 천연나노분산제를 연구개발하였다.

또한 생강향, 박하향 등 수십종에 달하는 천연향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증류, 농

공장들에서 인기가 높다.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한 《통약산》물비누와 세척제, 《은하수》와 《봄향기》화장품, 《금킵》, 《선홍》상표로 단 각종 당과류, 음료제품들도 이 공장에서 생산한 향료들을 넣어 만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청송향과 송진유를 비롯한 천연향료제



향료공장의 생산현황

사화

최무선이야기 (8)

라세는 황홀하여 손벽을 치며 좋아하였고 때로는 한참동안이나 말없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시험이 끝나자 두사람은 진영에 마련한 장군의 소박한 거실(살림방)에 마주앉았다.

《이처럼 훌륭한 사업을 몰라주다니... 참, 가슴이 아프시겠소.》 하고 라세는 진정으로 동정을 금하지 못하였다.

《내가 적은 병력으로 왜구를 물리친것은 오직 나라를 위한 백성들의 지성과 자기 한몸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런 마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과 같은 훌륭한 화약무기를 가진다면 더욱 적은 병력으로써 더 많은 적을 당해낼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이 심혈을 기울인 큰일이 세상에 빛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라세는 꼭 조정에 건의하여 화약무기를 대대적으로 제작하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최무선은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가슴을 헤쳐놓고 이야기할수 있었다.

얼마후에 라세는 장계를 올려 왜구들이 침략을 노리고 날치는 형편과 그 피해를 낱말로 이야기하였다. 그는 또한 왜구들이 조선에 범접을 못하게 하고 덤벼드는 놈들을 몰살해버리기 위하여 약과 화통 등을 대대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본바 실험의 위력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시급히 대량생산에 착수할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눈앞의 리속에만

눈이 어두운 통치배들은 조금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왜구의 침범은 이곳저곳에서 잦았으며 라세도 시급한 전투에 매달려 더 강경히 건의할 경황을 가지지 못하였다.

왜구들은 조선 중부이남의 서해안해상권을 거의 장악하다싶이 하였다.

하여 조선선박들은 거의 항행도 고기잡이도 할수 없게 되었다.

어민들과 배구들은 바다에 나갈수 없어 생활이 령락되었고 놈들의 불의의 습격으로 밤잠도 편안히 잘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는 비단 그 지방 백성들뿐만 아니라 개경에 있는 세신대졸들과 왕에게 있어서도 직접적인 심대한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전라도의 대곡창지대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있었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막대한 소출을 주로 배

세계적인기를 쓰는 조선온돌

온돌은 조선의 자연과 기후조건에 맞게 만들어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난방시설이다.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온돌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열기를 오래 보존할수 있기때문에 구에서 생활하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잠을 자고 난 후 개운해지며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 시기 유럽의 생활문화에는 공기난방이 잘 어울린다고 하던 서양사람들속에서 최근에는 일터에서 바빠 돌아오다가 집에 오면 방바닥에 육체의 맑은 부위를 접촉시켜 휴식하려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온돌의 인기가 올라가고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온돌을 모방한 전기온돌을 도입하고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여러 기업이 구들교래를 리용한 더운물순환난방체계와 전기온돌을 개발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상품명으로 구들 또는 온돌이라는 말을 쓰고있으며 사전에 올리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백화점에서는 《미니온돌》(소형온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소형전기담요를 팔고있으며 영국의 《옥스포드사전》에는 《온돌》이라는 단어가 올라있다.

본사기자



길로 운반하여오게 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배결의 형편이 이지경이 되고보니 운반해오던 곡물은 도중에서 모조리 락탈당하였으며 얼마후에는 배결의 완전차단으로 말미암아 한알의 쌀도 개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왜구들의 침범에 대하여 꿈만큼 생각하던 통치배들도 그 피해가 직접 자기들의 턱밑에 닥았으니 갑작스레 대책을 강구하느라 고머어매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쿵저러쿵 논의가 분

분하던 끝에 다만 사신을 왜나라에 보내어 단속을 의뢰하는것으로 또다시 논의는 락착되었다. 그리하여 정몽주를 정사로 한 사신일행이 왜나라로 답판하러 떠났다.

사신들이 떠나간지 오랜 시일이 지나갔지만 왜구들

리 나라가 오랜 세월 왜구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단호한 정벌을 가하지 않고있어야 옳단 말인가!

그렇스록 최무선은 화약연구에 더욱 정열을 쏟아부었다.

(라세장군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지. 그의 힘으로도 안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후세에 성취되는 걸바에 없다. 후세의 사람은 반드시 나의 화약으로 왜적을 무찌르고 나라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에도 라세장군이 찾아왔다.

그는 지금까지 찾아오지 못했것을 사과하였다. 그리고 최무선의 로고에 대하여 깊이 치하한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나하고 같이 궁중으로 갑시다. 당신의 화약과 화통을 전하께서 보시겠답니다.》

최무선은 처음 그 말의 뜻을 얼른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웃고있는 라세의 얼굴을 뵈히 바라볼뿐이었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세계특상계의 여왕》 신금단

공화국의 역사에는 금메달로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체육인들이 수없이 많다. 이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며 우승의 금메달로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체육영웅들 가운데는 신금단도 있다.

최저시절 국제무대에서 11번이나 세계기록을 세우고 28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천리마 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떨친 그는 함경남도 리원군에서

출생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회천공작기계공장(당시)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다가 1958년 9월부터 룡상선수생활을 하게 되었다.

1963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1차 신홍세력경기대회(가네포) 룡상경기에 참가한 그는 200m, 400m, 800m 경기에서 1등을 하여 3개의 금메달을 받았으며 400m와 800m경기에서는 세계기록을 세워 세상을 놀래웠다.

본사기자

또한 《즈나멘스끼형제상》 쟁탈 국제 룡상경기대회에서 7번이나 1등을 하였고 3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세워 《세계특상계의 여왕》으로 되었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인민체육인칭호가 제정되었을 때 신금단은 제1호의 인민체육인증을 수여받았으며 그 후에는 김일성상수상자의 영예도 지니었다.

본사기자

민간기법

흰두루미

흰두루미는 두루미과에 속하는 겨울새이다. 몸길이는 136cm, 몸질량은 10kg정도이다.

몸의 대부분이 흰색이지만 눈알과 목, 2월날깃의 끝부분만은 검은색이다. 검은색이 꼬리를 덮고 늘어져있어 꼬리처럼 보인다. 성수리에는 뚜렷한 붉은 색무늬가 있다.

논밭에 떨어진 낱알과 가래뿌리와 같은 풀뿌리, 곤충 등을 먹는다.

여름에 북쪽지대에서 갈대, 풀 등으로 등지를 틀고 연한 밤색바탕에 검은 점무늬가 있는 1~2개의 알을 낳는다.

가을에 조선중부이남의 해안지대에 와서 겨울을 난 후 봄에 북쪽지대로 날아간다.

본사기자

동치미

생강 100g, 소금 1.2kg, 배 300g을 준비한다.

소독한 독에 손질한 무우를 한들기 놓고 소금을 뿌린 다음 다시 무우를 한들기 놓는다. 이런 방법으로 독을 채우고 2일동안 절인다.

절인 무우를 한들기 놓고 파, 마늘, 생강, 통고추, 배를 놓는 식으로 독을 채우고 우거지를 덮은 다음 누름돌을 놓는다. 초벌절임할 때 생김 물과 끓여

먹은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속이 무직할때, 피로할 때 동치미무우와 함께 동치미국물을 마시면 속이 거든해지고 피로회복도 빨라진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우 30kg일 때 통고추 50g, 파 70g, 마늘 100g,

서 식힌 소금물을 채로 발은 다음 독에 넣고 아구리를 꼭 봉한다.

본사기자



이러한 물질은 사람몸안의 먼지나 유해금속미립자와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배설물과 함께 몸밖으로 배출된다.

③ 신선한 과일즙과 남새즙을 자주 먹어야 한다.

신선한 과일즙과 남새즙은 혈액이 알카리성을 띠게 함으로써 세포속의 독소가 용해되어 배설물과 함께 몸밖으로 배출되게 한다.

④ 특두즙을 자주 먹어야 한다.

특두즙은 맛이 좋을뿐 아니라 해독작용도 한다.

⑤ 미역을 자주 먹어야 한다.

미역에는 비타민과 미량원소들, 많은 광물질들이 포함되어있어 혈액을 맑게 하고 방사선피해막이작용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본사기자

《옷이 크니? 네가 작지》

아들에게 옷을 크게만 해 입히는 한 녀인이 있었다.

하루는 녀인이 해입힌 자루처럼 훌렁한 옷을 보고 아들이 말했다.

《옷이 벌써 작아졌구나.》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옷이 작나요? 내가 크지.》

본사기자